

초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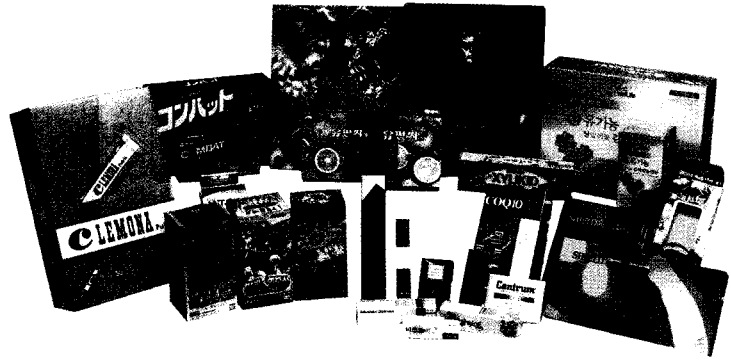
김충웅

김충웅

(주)한성실업 대표이사

패키지인쇄 반세기

“남은인생도 포장인쇄
기술개발에 몰두할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60-3에 위치한 (주)한성실업. 이곳에는 김충용 사장의 반세기 패키지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패키지인쇄와 관련된 특허만도 수두룩하다.

포장인쇄물 특허 다수

한성실업은 1만 평방미터의 대지와 3천3백 평방미터의 건물에 6색 UV인쇄기, 5색 및 2색 오프셋인쇄기, CTP, 톱슨기, 실크인쇄기, 라미네이팅기, 접착기, 카드 타공기, 카드 정합기와 다양한 디자인 장비 등 최신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다. 패키지 인쇄에 관련한 기획에서 납품까지 원스톱 서비스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김 사장이 누구보다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기에 포장인쇄와 관련된 특허만도 다수에 이른다.

패키지 전문 업체 중 선두에 있으면서도 김 사장은 “아직 멀었다”는 말을 자주 한다. 패키지 분야에서는 아직도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고객서비스 개선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가 이처럼 기술개발과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쇄업계와 인연을 맺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제가 인쇄업계에 입문한 시기가 1960년대입니다. 그땐 6·25 전쟁 이후라서 나라가 참 어려웠잖아요. 우리 집도 힘들었어요. 학교도 중요했지만 먹고사는 게 더 중요한 시기였지요. 취업도 쉽지 않을 때였는데 아는 분의 소개로 공화지기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포장인쇄 업체였습니다. 당시엔 시설과 기술이 형편없었지요. 그 이후로 조일지기(㈜삼보에이팩 전신)와 동양정판에서 13~4년 근무했는데 모두 패키지 관련 업체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머릿속엔 ‘기술’이란 두 글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인현동에서 72년 창업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제 꿈을 펼칠 수 없다는 생각

이 들더군요. 기술개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972년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패키지를 개발해보자는 생각이었지요”

김 사장은 1972년 서울 중구 인현동에 톱슨기 등을 놓고 한성실업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랜드 2색인쇄기도 들여놓았다. 그리고 당시엔 획기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엠보싱 기술을 선보였다. 김 사장의 예상대로 였다. 엠보싱 인쇄는 제약회사와 화장품 및 식품업체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김 사장에게는 기술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1986년에는 용산에 꿈에 그리던 자체 공장을 지어 이전했다. 시설과 인력도 대폭 늘었다. 그리고 예전처럼 기술개발에 매진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89년에 ‘음료수 박스의 간격 유지구’라는 제품을 개발해 처음으로 특허를 얻었고 95년에는 ‘약제용기용 상자’를 개발해 실용신안등록을 하기에 이른다. 그런 덕일까 회사는 승승장구했다.

1996년 현재의 위치에 공장을 짓고 이사했다. 직원도 크게 늘고 거래처도 늘고 그에 걸맞은 장비도 들여놓았다. 그리고 디자인실을 더욱 강화했다. 기술개발과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해서였다.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CTP도 패키지 업계에서는 초창기에 도입했고 CIP3도 완벽하게 구축했다. 2003년에는 ‘판지를 이용한 게임용 조립 유희구’를 개발해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가끔 지인들로부터 ‘성공한 인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인쇄인으로서 앞만 보



고 왔습니다. 성공한 인쇄인이라는 표현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저에게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고객에게 진실하고, 최고품질의 포장물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그 원칙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김 사장에게도 애환과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현동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뒤에 열음공장이 있었는데 우리 공장의 소음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쫓겨났지요. 비가 엄청 오는 날 기계를 밖에 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처럼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기계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지요.” IMF 사태도 김 사장을 비켜가지 않았다. 96년 현재의 공장을 짓고 이사한 다음해 IMF사태가 온 것. “공장을 짓고 이사하느라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주요 거래처였던 제약회사 몇 곳이 부도가 나더군요. 아찔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문구를 마음으로 다시 다짐했지요. 용산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이것저것 합쳐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당시 저를 믿고 함께 해준 임직원들과 거래처에 감사할 따름이지요.”

지기인쇄의 외길을 걸어 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냐는 질문에는 “최고가 되고 싶어서”라고 답한다. 이것저것 하다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지



기인쇄밖에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역시 지기인쇄만 할 거란다. “배움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 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후회나 원망은 없습니다. 그 시절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살기에 바빴으니 누구를 탓 하겠습니까.”

자신의 못다 이룬 학문의 아쉬움과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일까? 김 사장은 20여년전부터 당시 인쇄업계로서 힘든 일을 실행에 옮겼다. 임직원 자녀들에게 중고교까지는 전액을, 대학은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주기 시작한 것. 장학금 전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출시장 개척 염두

한성실업의 임직원은 60여 명. 그런데 특이한 것은 30년 넘는 김 사장의 동지와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오세관 공장장은 28년, 김덕수 부사장은 30년째다. 그들은 김 사장이 한마디로 통하는 경영인, 근로자를 아끼 줄 아는 CEO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

지금도 간접적인 수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는 김 사장은 패키지 업체도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내에서 단가경쟁을 지양하고 품질로써 경쟁하는, 패키지업체 스스로의 상생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기술인력난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하며 주택 문제와 포상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지기인쇄로 시작했으나 지기인쇄로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김 사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정직과 기술개발’이라는 사업의 철칙을 늘 지키면서 인쇄문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담_ 유창준국장·사진_ 박성권기자



(주)한성실업 주요 연혁

- 1972. 09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통신문으로 첫 출발
- 1976. 인쇄부 신설 확충
- 1981. 제판부, 코팅부 신설 확충
- 1986. 11.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본사 및 공장 신축이전
- 1989 서울 용산구 삼각지 제2공장 설립, 가공부 증설 확충
- 1996. 07.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60-3 현 소재지 본사 및 공장신축 이전
- 1999. 10. 경기도 유방 중소기업선정
- 2001. 08. ISO 9001인증
- 2005. 03. 게임카드 사업부 신설
- 2006. 11. 경기도 광주시 유방 중소기업 선정

